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64호 1판 (음력 5월 22일)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열린 18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후반전 이근호가 선제골을 넣은 후 환호하고 있다. 위쪽은 러시아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예프가 일단 두 손으로 막아낸 볼이 머리 뒤로 흘러 골대 안으로 빨려드는 모습을 순서대로 찍은 사진(왼쪽부터). /연합뉴스

한국, 러시아와 1-1 아쉬운 무승부

23일 알제리 잡으면 16강이 '성큼'

BRASIL 2014

〈관련기사 2·3·7·10·18·19·21면〉

홍명보호가 일주일만에 '절반의 기적'을 일궜다. 지난 10일 가나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졸전으로 우려를 샀던 홍명보호는 러시아와의 실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선제골은 한국이 뽑아냈다. 후반 23분 역습 상황에서 이근호가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렸다. 이근호의 슛은 골키퍼를 맞고 골대로 들어갔다. 아킨페프의 실책성 플레이로 한국이 선제골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러시아는 후반 29분 동점골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문전에서 볼을 잡은 알렉산드르 케르자코프가 골대로 공을 집어넣으며 러시아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로써 한국과 러시아는 앞서 알제리를 2-1로 꺾고 H조에서 가장 먼저 승전가를 부른 벨기에에 이어 공동 2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으로서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여서 아쉬움이 남는 한판이었다.

태극전사들은 조직적인 플레이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손흥민·구자철 같은 공격진부터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했고, 중원의 기성용과 한국영은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공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에서 한국(52%, 77%)은 러시아(48%, 75%)를 앞섰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전반 13분)·기성용(전반 30분)·구자철(후반 45분) 등 주력 선수들이 무더기로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주의보가 울린 상황이다.

홍명보호는 이날 오후 러시아전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겨 브라질 포스 두 이구아수 베이스캠프로 복귀했다.

태극전사들은 이구아수에서 이틀간 훈련을 한 뒤 알제리와 결전을 치를 포르투알레그리로 건너간다.

태극전사들은 23일 오전 4시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알제리와 첫 승리를 놓고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러시아와 비긴 한국으로서는 알제리를 반드시 꺾어야 16강 진출 희망을 키울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월드컵 스코어 보드

대한민국	1:1	러시아
벨기에	2:1	알제리
브라질	0:0	멕시코

오늘의 월드컵 (19일·한국시간)

카메룬 A조 크로아티아
오전 7시·SBS, MBC

내일의 월드컵 (20일·한국시간)

콜롬비아 C조 코트디부아르
오전 1시·KBS2, SBS

우루과이 D조 잉글랜드
오전 4시·KBS2, MBC

일본 C조 그리스
오전 7시·KBS2, SBS, MBC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주도 '저가 항공 시대' 열린다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 광주~제주 8월부터 취항 市, 광주~인천 노선도 추진

광주 하늘에도 저비용(LCC·Low Cost Carrier) 항공기가 날아다니게 됐다.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광주~제주 구간에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한다. 광주시는 18일 "국내 5대 저비용 항공사 중 한곳인 티웨이 항공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광주~제주 노선 운항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웨이 항공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8월부터 광주공항에 취항할 예정이다. 티웨이 항공은 국토부와 최종적으로 광주공항내 체크인 카운터 설치, 광주·제주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시간 배정 등을 협의 중이다.

티웨이 항공은 매일 왕복 3차례씩 189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이며 운임은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30%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편도 기준 5만~6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애초 오는 12월 KTX호남선 개통에 맞춰 광주~인천간 저비용 항공사 취항을 추진했으나, 티웨이 항공에서 우선 광주~제주 구간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이번 취항이 결정됐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인천 노선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공항의 광주~제주 노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기존 선박 이용객까지 몰리면서 항공권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등 5개 저비용 항공사가 김포, 부산, 청주, 군산공항에서 국내외 노선을 취항 중이다. 특히 이번에 광주공항에 취항하는 티웨이 항공은 지난 2010년 설립된 후 총 7대의 항공기로 국내외 노선을 운항중이며, 지난해에는 '김포~제주 노선 9900원' 등 파격적인 특가항공권을 내놓는 마케팅으로 국내 항공시장을 뒤흔들기도 했다. 티웨이 항공은 광주공항 취항 기념으로 이 같은 특가항공권 등 대규모 마케팅에도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으로 군공항과 광주공항의 동시 이전도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봉주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광주시민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주도를 오갈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광주공항이 활성화되고 상품성이 높아지면 군공항과 함께 패키지로 이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